

# 반도체 호황…내년 ‘코스피 5,000시대’ 열리나

국내 증권사 7곳 내년 전망치 제시  
하단 3,500선-상단 5,500선 지목  
전문가, 조정 속 강세장 지속 배팅

2026년 새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한 해 코스피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에 시장의 관심이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봄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우동성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5,000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인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2026년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

-4,000으로, 상단을 4,500-5,500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증권사는 현대차 증권(3,900-5,500)이었다.

이어서는 대신증권(4,000-5,300), 부국증권(3,500-5,000), 삼성증권(4,000-4,900), 다우투자증권(3,740-4,930) 순으로 높은 목표치를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논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둔화 우려에 짓눌려 국내 증시는 11월 초 4,221.87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이달 초 3,920.37까지 밀리는 등 최근 한 달여간 상당폭의 조정을 겪었다.

그런 와중에도 증권가 전문가들은 단기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강세장 지속에 배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정보팀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코스피 등락 범위

로 4,000-4,900을 제시하면서 “2026년 한국 증시는 더욱 훨씬 더 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수석연구위원은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성장 스토리와 맞물린 기업 실적 상향이 시장 전반의 레벨 업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상반기 말로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과 11월께 열릴 미국 중간선거와 미·중 관세 우예 만료 등을 앞두고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초 2026년 코스피 밴드를 3,300-4,000에서 3,800-4,600으로 올려잡은 유안타증권은 내년 코스피가 1분기 3,800-4,200, 2분기 4,000-4,400, 3분기 4,100-4,500, 4분기 4,200-4,600 밴드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분기별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김용구·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상주의 재정정책과 선제적 통화완화,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에 기인한 ‘준(準) 골디락스’ 도래에 대한 기대가 증시 낙관론의 핵심 논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준의 선제적인 느린 완화 사이클을 본격화가 주요국 통화완화 릴레이와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를 동반 자극, 글로벌 재고 보충 기류 부활 및 제조업·투자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기능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저평가된 반면 이익 모멘텀은 최상위”라면서 “글로벌 주요국들과 벤류 에이션 키 및 추가 기반으로도 최소 10%에서 30%의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해양에너지, ‘복합 재난’ 상황 신속 대응 전사 비상훈련 성료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초점

(주)해양에너지는 10일 “전날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본사 강당에서 전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급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라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해양에너지 임직원과 협력회사를 비롯해 광주시청, 북구청, 북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시행됐다.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구현해 전 부서가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고 수습·복구, 대민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이번 전사 비상훈련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주)해양에너지는 지난 9일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본사 강당에서 전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해양에너지 제공

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해양에너지는 광주와 전남 8개 시·군

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해양에너지의 투자자인 맥쿼리인프라 국내투자자들이 8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프라펀드이며,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 김수연 주무관, 12월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김혜민 광양세관 주무관 ‘업무유공자’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사진 원쪽)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사진 오른쪽)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 투데이경제



KT, 광주자원봉사센터 쌀 1천500kg 기부

KT 전남전북광역본부가 임직원들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시행한 ‘잔반 Zero, 완밥식당’ 환경 캠페인을 통해 광주자원봉사센터에 10kg 쌀 150포(총 1천500kg)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KT 광주타워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완밥식당’ 캠페인에 KT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했고 점심 식사 후 남은 음식 없이 식판을 깨끗이 비운 모습을 인증했다.

캠페인 참여자 수에 따라 쌀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담양 지역 수해 농가에서 구매한 쌀을 준비하며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식에서 기부된 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호 KT 전남전북광역본부 경영기획담당 상무는 “임직원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광주본부, 광주자연과학고 쌀국수 전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0일 “광주 조합 운영협의회와 함께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쌀국수 1천개를 전달하는 뜻 깊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농협, 동곡농협, 서창농협, 평동농협 임직원과 광주자연과학고 교직원 20여 명이 자리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농식전심(農心天心)’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전달식은 우리쌀 가공식품을 흥보하고 아침밥먹기를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농협광주본부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제도임을 알리고, 교직원들이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하도록 제안했다.

/안태호 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산무지국 453-2554
- 운동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불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주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철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강릉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www.kjdaily.com](http://www.kjdaily.com)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 062)650-2000

▶ 구독문의: 062)650-2022